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REDACTED])	
성명	[REDACTED]	
참가 프로그램	동계 셀프디자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6년 01월 12일-2월 6일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국제협력팀의 동계 셀프디자인 어학연수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국제협력팀 공지를 통해 프로그램 합격 여부를 확인하였다.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만하임대학교의 International Winter Academy(IWA)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관련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셀프디자인 지원 당시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여권 수령 후 항공권 예매와 여행자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현지 연수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다. 또한 IWA 프로그램 시작 약 6주 전에 본인의 독일어 수준에 맞는 강의 배정을 위해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응시하였다. 수업 관련 공지사항과 온라인 테스트 안내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으므로,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후 셀프디자인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 이틀 전에 출국하여 현지 연수를 준비하였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프로그램 시작 전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현재 독일어 수준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이 배정되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진행되었으며, 필요 시 추가 설명은 영어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수업은 총 4주간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진행되었으며, 첫 주를 제외하고 2, 3, 4주차에 각각 한 차례씩 필기시험이 실시되었고, 4주차 마지막 수업일에는 구두시험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어휘·문법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강의에는 기본 교재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사의 추가 자료와 독일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단어 학습 등)이 병행되었다. 또한 수업에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학습 프로그램은 매일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어, 수업 이후에도 반복 학습과 복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수업 방식은 참여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대화문을 직접 구성하는 등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수		

업이 진행되었다. 문법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말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반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독일어 수업 외에도 다양한 세미나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만하임 및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 등 인근 도시를 방문하는 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 참가 성과

독일어를 독일어로 배운다는 점이 꽤나 장점으로 작용되었다.

01 언어에 완전히 노출되는 환경

독일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학습함으로써,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독일어를 독일어로 이해하는 사고 방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단순한 번역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 맥락에 맞는 언어 습득으로 이어졌다.

02 실제 생활과 연결된 실용적 언어 습득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일상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어, 교실 내 학습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서적 표현과 실제 사용 언어의 차이를 체감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

03 발음·억양·리듬에 대한 감각 향상

원어민 교사의 발음과 억양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독일어 특유의 문장 리듬과 강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04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정확성 개선

수업 중 즉각적인 교정과 설명을 통해 문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빠르게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식 사고에서 비롯된 오류를 직접 지적받으며, 언어 간 간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05 언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율성 향상

독일어만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학습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독일어 사용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향후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4. 본인 소요경비

합계, 프로그램 비용,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용, 식비, 개인 경비(통신비, 여행비용 등) 등

항목			
IWA 수강료	€685	1,186,543 원	
항공권		1,110,500 원	왕복 - 몽골 경유 티켓
숙소		1,138,990 원	약 4주
교통비(독일)	€104.98	166,877 원	Deutschland티켓(€63) 독일 철도 DB 이용
교통비(한국)		79,800 원	공항버스(광주↔인천공항)
여행자보험		46,190 원	
eSIM		27,500 원	30일
식비	약 €200	약 342,962 원	외식 최소화
개인 경비	약 €200	약 342,962 원	기타 예비 비용 및 여행비
합계		약 4,442,324 원	

기존 예산은 450만원으로 잡았으며 셀프디자인 지원금으로 200만원, 자부담 250만원이 들었다. 주 5일 수업이 있었음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 힘들었기에 만하임을 기준으로 하이델베르크, 마인츠 등 당일 여행을 다녀왔다. 돈 관리를 위해 카드보단 현금 위주로 사용하였다.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만하임 대학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독일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졌으며, 텍스트·사진·영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던 독일 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는 언어 학습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영어 학습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영어 실력의 한계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은 영어 능력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이번 어학연수는 첫 해외 경험이자 독일에서의 단독 생활이라는 점에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현지 교통 시스템과 마트 이용 등 일상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혼자 생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셀프디자인 어학연수를 통해 독일어를 실제 사용 환경에서 학습하며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방식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향후 학업 과정에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드러난 본인의 언어적 강점과 보완할 점을 바탕으로 독일어 실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독일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콘텐츠를 전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언어로 인식하게 되면서 출판 및 번역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분명해졌다.

1) 학업계획

독일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과 문맥 이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닌 문화와 맥락을 고려한 작업이라는 점을 이번 연수를 통해 체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어 원서 읽기와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어학연수 중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만큼, 영어 독해 및 표현 능력 역시 함께 보완하여 다언어 환경에서의 번역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2) 진로계획

독일어권 출판물과 콘텐츠를 국내에 소개하는 출판·번역 분야를 중심으로 진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어 원문의 정확한 이해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활용 능력 또한 함께 강화하여 다언어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고자 한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독일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직접 경험한 것은, 향후 번역 및 출판 업무에서 원문에 담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출판·번역 분야에서 요구되는 언어적 정확성과 문화적 이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출국 전 기본적인 독일어 실력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준비도 함께 권장하고 싶다. 수업은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부가적인 설명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학습과 생활 모두에서 도움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 관련 안내 사항과 수업 공지는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므로, 출국 전부터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레벨 테스트와 수업 관련 안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생활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낯설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교통 이용이나 마트 사용 등 일상적인 시스템에 빠르게 익숙해질수록 생활 전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출국 전 독일의 기본적인 교통 체계와 생활 정보를 미리 조사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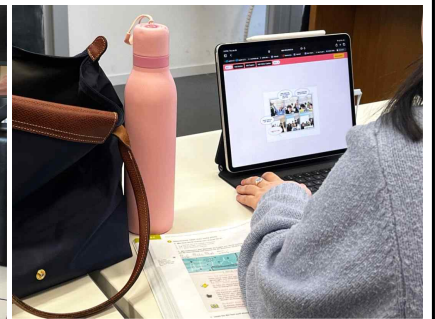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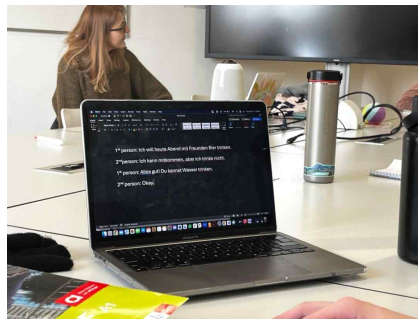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업은 한국과는 다르게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 하기보다, 배운 내용을 활용해 직접 말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어학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강의실



수업 중 참여 활동



숙소

